

## NEASE-Net 제 13 회 포럼 코뮤티케

2018 년 11 월 11 일

NEASE-Net 제 13 회 포럼은 2018 년 11 월 11 일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니혼바시 라이프 사이언스 빌딩 1004 호실에서 도호쿠 대학 동북아시아 연구 센터와 공동, 일반 사단 법인 도쿄 클럽의 조성으로 개최되었다.

작년 제 12 회 포럼과 같이 '동북아시아 질서 재구축: "대립(対立)에서 협동(協働)으로"라는 주제로 오카 히로키(岡洋樹) 도호쿠 대학 동북 아시아 연구 센터 교수와 사도토모 데츠(佐渡友哲) 교수의 공동 사회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 1 부, 작년부터 시작된 Young Leaders 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 질서 재구축」에 관해서 중국, 미국, 인도 등에서 온 유학생과 일본 젊은 연구자로부터 시의적절하고 유니크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 2 부,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제 1 세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에 대한 에너지, 환경, 물류와 금융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 NEASE-Net 대표 간사와 나카가와 주로(中川十郎) 나고야 시립 대학 22 세기 연구소 특임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패널리스트 다나카 히로시(田中弘) 환경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대표와 아스카 주센(明日香壽川) 도호쿠 대학 동북 아시아 연구 센터 교수의 발표 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논의는 일대일로가 더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진화하도록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보였다.

오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友紀夫) 전 일본 총리와 글렌 후쿠시마(Glen Fukushima) 미국 선단 정책 연구소 상급 연구원의 기조 강연이 시작되었다. 하토야마씨는 북한 정세 변화, 일중 관계 완화 등 정세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솔직한 제언을 하였다.

글렌 후쿠시마씨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본 트럼프 정권의 외교에 대한 변화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의견을 내었다.

제 2 세션은, "북미 관계 · 세계 경제"를 주제로 하여 고마키 데루오(小牧輝夫) 오사카 경제법과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객원 교수를 모더레이터로, 이종원(李鍾元) 와세다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교수와 하바 구미코(羽場久美子) 아오야마 가쿠인대 교수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패널리스트 기무라 도모요시(木村知義) 동북아시아 동태연구회 주제, 안드레이 빌로프(Andrey Belov) 후쿠이현립대 교수와 김경한(金敬翰) 한국 공사(公使)로 인한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종합 세션에서는 지바 야스히로(千葉康弘) NEASE-Net 부대표간사와 사도토 모 데츠 교수의 사회로 료 세이코(凌星光) 일중 과학 기술 문화 센터 고문의 문제 제기로 NEASE-Net 단체 회원으로부터 각 지역과 연구 기관의 동향이 보고되었다.

총괄 코멘트는 후지모토 와키오(藤本和貴夫)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 연구소 소장이 하였다. 또, 클로징 세션에서 코뮤티케 방안 발표를 시오야 다카후사(塩谷隆英) NEASE-Net 부대표간사가 하였다.

작년 11월 5일의 제 12 회 포럼 때에 비하여 세계 경제는 급변하였다.

올해는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과 북한 정상 회담에서 5 개월이 경과한 지금, 포럼이 개최되었다.

우리는 작년 제 12 회 포럼 코뮤티케에서 세계 경제가 "긴장과 일촉즉발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대화와 협력을 쌓아가는 방향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6월 12일 회담을 통해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은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아직 비핵화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같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동북아시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하나씩 과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포럼에서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구축에 이바지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의 입장과 의견은 다양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과 그것과 연결된 남북, 북중 회담은 일촉즉발이었던 세계 정세의 긴장 관계를 대화에 의해 완화시키는 역사적인 쾌거이며, 이를 동북아시아의 영구적 평화로 연결하기 위해 일본도 주체적으로 이에 관여하여 일본, 북한 쌍방에 대표 기관을 두거나 구체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21세기 국제적 규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대(遠大)한 전략이다. 일본도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도 참가하고,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된 아시아 경제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고, 더욱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발전해 나갈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3. 지정학적으로는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일본해 연안 지역은 "일대일로" 구상의 전략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우리는 제5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에서 제창된 '일본해 국토축' 이념을 계승하고, 특히 일본해 연안 신칸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싶다.
4.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대해 중국이 "중국 제일주의" 전략을 취하고 미중 양 대국이 대립한다면 세계에 큰 불행이 초래된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양국에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고, 세계 경제 전체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한다. 양국의 이성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싶다.
5. 일중 양국 정상의 노력도 있어, 일중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 무역주의적 기운을 불식하기 위해 WTO 이념을 견지하면서 "일한중 FTA"와 RCEP(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휴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자유 무역 권역의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
6. 개선되고 있는 일중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안전 보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주도의 안전 보장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7. 우리는 EU(유럽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실현을 향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발상에 얽매이고 생각을 멈추는 것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 고찰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기관과 연구

자에 의한 "지식 네트워크"의 역할은 매우 크다. 동북아시아 연구 교류 네트워크(NEASE-Net)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완수해 간다.